



아시아 기타 게임 시장 동향

베트남 온라인 게이머, 2011년에 1,000만 명에 달할 것

베트남 시장

- ◆ 시장조사업체인 Pearl Research이 최근 발간한 “Online Games Market in Vietnam”에 따르면, 베트남의 온라인 게이머가 2011년에 1,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
 -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게임으로는 국산 리듬액션 게임 ‘오디션’과 중 Kingsoft의 Swordsman Online(or JX Online, 剑侠情缘)이 꼽히고 있음

성장 동력 및 해결 과제

- ◆ 최근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의 위기설에도 불구하고,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에 대한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보급률과 해외 업체들의 잇따른 진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
 - 최근 베트남의 인터넷 보급률은 23.5%로 크게 성장했으며,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,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
 - Pearl Research의 Allison Luong 애널리스트는 “대부분의 베트남 게임은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된 것으로, 양국 게임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게임 라이선스 체결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, EA 등 글로벌 게임업체들도 FIFA Online 출시를 준비하는 등 해외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”고 전함
 - 현재 베트남 게이머들의 월평균 아이템 지출 비용은 3~6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2011년 사용자가 1,0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, 2011년경 베트남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시장 규모는 적어도 3,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
- ◆ Pearl Research는 이 같은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의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, 온라인에 대한 정부규제, 세계적인 경기침체, 개발 인프라 부족, 낮은 소득 수준 등 극복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

대만 온라인게임 시장, 2010년 3억 6,0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

2010년 대만 온라인게임 시장, 3억 6,0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

- ◆ 시장조사업체인 Market Intelligence Center에 따르면, 2008년 대만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3억 달러에 달하며, 2010년에는 3억 6,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이번 조사는 약 7,000명의 대만 게이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
- ◆ 대만 게이머의 월평균 지출액은 10달러이며, MMO 게임을 선호하는 게이머는 95%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
 - MMORPG에 대한 니즈가 강한 편이며, 대표적인 게임으로 ‘리니지’, ‘십이지천’, ‘마비노기’, ‘주선 온라인(Legend of Zhuxian)’ 등이 알려져 있음

국내 업체 진출 현황

- ◆ 대만은 중국 시장에 이어 국산 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된 나라로, 현재 전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국산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%로 알려져 있음
 - 올 상반기 대만으로 수출된 국산 게임은 38개 정도로 활발하지만, 라이선스 계약금을 제외한 로열티 수익은 일부 성공 사례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은 편
 -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 상의 서버 관리 비용, 30% 이상의 편의점 유통 마진, 100개가 넘는 케이블 TV 시장을 통한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, 직접 서비스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

Table		대만 인기 온라인게임(MMORPG) 순위 (2008년 11월 기준)	(단위:명)
순위	게임명	일방문자수	
1	루나 온라인	1,470,596	
2	WoW	862,739	
3	탐식천지2	470,547	
4	리니지	210,581	
5	적벽	192,477	
6	십이지천	182,503	
7	메이플스토리	129,110	
8	무림군협전	122,711	
9	주선	82,796	
10	마비노기	66,886	

[출처] Gamebase.com.tw

Sony, 콘솔게임 개발 활성화 위해 인도 개발자에게 게임엔진 제공

● Sony, 인도 개발자들에게 게임엔진 제공

◆ 美 게임개발 업체인 Vicious Cycle Software가 Sony Computer Entertainment Europe(SCEE)과의 제휴를 통해, 인도 개발자에게 자사 게임엔진인 Vicious Engine를 제공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발표

- D3Publisher의 개발 스튜디오인 Vicious Cycle Software, Inc.는 2000년 설립, 콘솔에서 PC에 이르기까지 전 플랫폼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으며, Vicious Engine의 개발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최근 Xbox는 물론 PS3 기반의 게임 개발에도 최적화된 신규 버전 Vicious Engine 2를 발표

● 제휴 배경

◆ 이 같은 SCEE의 제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PS2와 PSP용 게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

- SCEE의 Jim Ryan COO는 “Vicious Engine은 직관적이며 사용이 간편해 유연성과 빠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”며 제휴 배경을 설명

◆ Vicious Engine은 어드벤처 게임 'Dead Head Fred'를 비롯해 베스트셀러 'Flushed Away', 캐주얼게임 'Puzzle Quest: Challenge of the Warlords' 등의 PS2 및 PSP 기반 게임 제작에 사용

- 또 'Discover Babylon'이나 'INNOV8'과 같은 교육용 타이틀에도 Vicious Engine이 사용

◆ Vicious Cycle Software는 차세대의 콘솔에 최적화된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제공, 광원 엔진 및 애니메이션 블렌딩, 현대식 픽셀 셰이더 등을 제공하는 신규 버전 Ve2를 발표

 www.viciousengine.com  www.d3publisher.us

Atari, Konami와 호주시장 유통계약 중단

● Konami, Atari와 유통계약 종결, Red Ant와 손잡이

◆ 日 Namco Bandai가 Atari의 모기업 Infogrames European의 지분 34%를 확보하면서, Atari는 9월부터 Namco Bandai 게임 타이틀의 호주 유통을 담당

- Atari는 대신 내년 2월 'Silent Hill: Homecoming'을 끝으로 지난 10년간 맡아왔던 Konami의 호주 지역 타이틀 배급을 종료할 예정
- ◆ Konami의 호주 지역 타이틀 배급 업체로는 호주의 유통업체인 Red Ant인 것으로 알려짐
- Red Ant는 Atari를 대신하여 'Silent Hill' 시리즈의 배급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짐
- Red Ant는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에서 Bethesda, Midway, SouthPeak, Capcom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퍼블리셔의 비디오게임 타이틀 배급을 담당하고 있음



www.red-ant.com.au